

송인회 이사장 신년사_1월

새해 신축년(辛丑年)

안팎에서 서로 응하여 목표를 이루어냅시다!

2021. 1. 1.

건 설 근 로 자 공 제 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제회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들과 희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해 오직 한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소의 해' 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소의 품성을 닮아 우리 공제회가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의 눈으로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 커다란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식구 여러분!

구름을 만나 용이 하늘을 날고 바람을 만나 호랑이가 산천을 달리듯이, 지난 2019년 4월 여러분과 제가 운명처럼 이 자리에서 만나 한마음 한뜻으로 경영혁신에 전념하여 전례 없는 공제회의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제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1등(A등급)을 달성하였고, 부패방지시책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성과도 컸고 경영역량도 높아졌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은 5,800억원 이상으로 연간 실적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자산운용 수익률은 4%대를 기록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수요를 담은 중장기 복지로드맵도 구축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연간목표 대비 97.6%를 달성하였고, 취업 알선일수는 2015년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만일을 돌파하였습니다. 전자카드제의 안정적 시행,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등급 기준체계 마련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도 큰 성과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일구어낸 결실들입니다. 모두가 함께 혁신 원년에 「NOW 전근공 22」라는 경영혁신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였고, 2차연도부터는 「HERE! : High Efficiency and Rapid Execution!」이라는 서브프레이즈 아래 높은 효율과 빠른 실행에

기반한 혁신 가속화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동고동락의 우의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혁신 도정의 반환점을 돌아 「NOW 건근공 22」의 목표 지점을 향해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활력 넘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혁신 성공의 도정에 일로매진하여 모든 부문에서 선도적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냅시다.

이를 위해 2021년 우리 공제회의 식구들이 일하는 가운데 가슴에 새길 성어(成語)로 줄탁동기(啐啄同機)를 말씀드립니다. 줄(啐)은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찌는 것이고, 탁(啄)은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알 밖에서 마주 쪼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는 밖에서 쪼고 새끼는 안에서 깨트리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소리는 불협화음을 내고 같은 소리끼리가 서로 응하여 울리듯이, 우리가 어울림의 한목소리를 낼 때 장벽을 깨트리고 우리 삶의 성공과 공제회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혁신의 자율조정 역량을 강화,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혁신의 몰입·확산·가속화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전자카드제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되면 공제회의 업무, 기능, 역할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증장기 실행계획을 확대·개편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퇴직공제 사업장 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나갑시다. 퇴직공제 대상 공사 증가에 따라 규모, 공종, 발주기관별로 이행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전담 책임제 시행, 비대면 관리시스템 도입, 소규모 사업장 집중점검 확대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사, 단말기 업체 확대 등 인프라 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체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사업을 대폭 확충해 나갑시다. 수급요건 완화에 맞춰 하나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비대면 청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망 피공제자에 대한 고지·청구 등 찾아주기 사업도 강화해야 합니다. 고객의 수요가 높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더한층 강화합시다. 공제회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을 늘리고, 뉴마이스터 훈련 및 제대군인 베테랑 양성훈련 등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협업과 지역훈련기관·취업지원센터·기업 간 업무연계도 더 탄탄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 나갑시다. 대외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특단의 자산관리방식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국내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안정화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더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투자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투자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언택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조직역량 확충과 혁신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시다. 적정임금제 도입,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새로운 제도,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무급제 운영체제 마련 등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최적의 정보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건설근로자 정책개발 지원 및 통계자료 분석·생산, 윤리경영 강화와 청렴문화 확립, 혁신과제 지속 발굴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협력적 노경관계 구축, 식구들 간 다양한 소통채널 및 다채로운 사내행사를 통한 일체감 조성, 새로운 IT에 대한 홍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으로 건설근로자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제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제5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공제회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공제회 식구들의 선배로서 제도의 취지를 모범적으로 이해하여 공제회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 공제회 발전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공제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추구해 나갈 경영의 핵심은 'Run 스포트 경영' 입니다. 지난해부터 추구하고 있는 '함께 행복해지는 경영' 을 완성하기 위한 행동방식입니다. 새해에는 혁신 완성도를 높여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제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최고 고객인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납부해 주시는 사업주, 정부와 우리 기관 식구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경영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넌 내 하나뿐인 태양, 세상에 딱 하나 /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지꾸 목말라 // 더 뛰게 해줘 / 나를 더 뛰게 해줘 // 다시 Run Run Run ... / 또 Run Run Run ... ” 미국 대중음악의 그랜드슬램 달성을 앞둔 우리나라의 7인조 그룹 BTS가 부른 'Run' 의 노랫말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의지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은 꾸준함의 결실이고, 아름다운 하모니의 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빗방울이 그 지속적인 꾸준함으로 바위를 깎아내고, 첫 삽에 연하여 또 한 삽이 이어지고 이어져 마침내 산을 옮길 수 있듯이, 기업·기관의 성공의 이치도 화합과 협력으로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눈물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막판 스퍼트를 내서 우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냅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경영 지향점을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에 창의성을 발현해 나갑시다.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이겨내고 지레짐작으로 예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시각으로 우리의 방식, 태도, 습관 등을 혁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냄으로써 공제회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나갑시다.

모든 업무영역에 성공의 기본법칙을 적용해 나갑시다. 우리의 두뇌는 항상 감성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의 두 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성과 열정을 제공하는 감성이 함께 작용할 때 혁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적지와 명확한 방향을 정해 식구 모두 공유하고, 서로 감성에 호소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마다 상황을 구체화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겨 나갑시다.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공제회의 역할과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생생한 혁신 스토리를 만들어 고객과 국민에게 전함으로써 이전 역사에 스토리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사업 추진과 그 결과물에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읍시다. 핵심은 진정성 그리고 스토리입니다.

새로운 공제회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공제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식구 모두가 10년 뒤, 100년 뒤 공제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 맡은 일을 진지하게 이루어내는 열정, 일에 몰입하며 자신을 던지는 헌신, 내가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공제회 시대를 활짝 열어갑시다.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공제회 혁신 식구 여러분!

2021년을 공제회가 수직 상승하는 해로 만듭시다. ‘Run 스퍼트 경영’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3차연도 혁신 캐치프레이즈 안에 담아 주십시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2021년 올 한해는 실질적으로 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 합니다. 밖에서 쪼고 안에서 깨트리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서로 응하는 공제회를 만듭시다. 동일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3년 차의 정주에서 전력 질주하여 최고의 스포트를 내는 한 해로 만듭시다.

끝으로, 이번에 승진한 식구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도 따듯한 격려와 힘께 더욱 분발할 것을 응원합니다. 새로이 전보된 자리에서 “Run Run Run” 모두 힘껏 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元旦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송 인 회